

광주시, AI 상생모델 제안...전남도, 에너지미래도시 홍보

한중지사성장회의

姜시장, 산업 전환·청년 인재 양성 등 제시
金지사, 여수섬박람회 중지방정부 참여 요청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 각각 인공지능(AI) 상생모델을 제안하고 에너지미래도시·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하는 등 양 국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인천,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2회 회의 이후 7년 만에 서울에서 진행됐다. 인흥 장시성 당서기를 비롯해 양양민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산이 라오닝성 부성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유정복(인천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등 6명이 참석했다.

회의 제1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2개 지역이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3개 지역의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후에는 한중 양국 대표가 공동선언문을 체결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다짐한 후 2027년 제4회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한중 지방정부 산업혁신과 상생의 길'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협력에 더해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산업 전환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가 2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과 청년 인재 양성, 스마트 행정이라는 공통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야말로 한중 지방정부 협력의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州市는 전략산업으로 'AI 산업'을 설정하고 2017년부터 선정했다. 광저우·항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들과 산업·기술·문화·청년 교류 등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질적 협력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제는 '모두의 AI' 전략을 통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시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시장은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국

도시의 기술력과 시장 역량을 결합해 AI 모빌리티·헬스케어·콘텐츠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청년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지역 청년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AI 기반의 행정 혁신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함께 연구하며 '스마트 도시행정 모델'을 구축하자"고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에너지 미래도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에 주력했다.

회의에 앞서 김 지사는 중국 장시성 인흥 당

서기와 회담을 갖고 경제·산업을 비롯해 농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27년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양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와 중국 장시성은 2004년 우호교류, 2012년 자매결연을 하고 고위급, 농업,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열린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서 김 지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에너지 미래도시 여건 소개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제

시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중국 지방정부의 참여도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이번 회담과 회의를 통해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지사성장회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한중 지방정부 공동 발전과 실질적 협력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AI 기반 'K-농업 미래 비전' 세계에 알렸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 폐막

24만여명 방문...3천304만달러 협약

해외 시장 진출 글로벌 경쟁력도 입증

2025 국제농업박람회가 7일간 관람객 24만여명을 끌어모으며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29일 막을 내렸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 AI와 함께하는 농업 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감성과 미래농업, 글로벌 산업이 융합된 농업박람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람회에선 AI·로봇·드론 등 첨단 스마트농

업 기술을 집약해 전시했다.

상생마당전, 농업미래전, 농업산업전, 비즈니스전, 힐링치유전 등 5개 주제존에서 스마트농업 장비 시연, 글로벌 농기계 체험, K-커피 홍보 등 다채롭게 운영된 콘텐츠는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 입의 여유, 월드세상', '단감&고구마 수확체험', 'AI 건강 골든벨' 등 체험형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흑염소 요리 경진대회', '전남 농산물 패션쇼', 'AI농사놀이 챌린지' 등 참여형 행사는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며 박람회의 열기를 더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17개 국가 50개 해외바이어와 국내 100개 농식품 기업이 참가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통해 3천304만달러(약 463억원)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 27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 대표 브랜드 쌀 '새청무'를 비롯한 농

식품·수산물·농기자재 등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케이(K)-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또한 ▲2025 World Agri-FoodTech 국제포럼 ▲농업기계학회 ▲스마트농업 AI비전포럼 ▲국제커피심포지엄 등 학술행사도 성황리에 진행돼 AI 기반 스마트농업 및 수출형 농식품 산업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관수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전남 농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와의 연결을 보여주는 무대였다"며 "AI와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한 혁신 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함께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감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중기부 '아기유니콘 사업' 전남 6년간 '0'

서울 등 수도권 78.9%...광주 2.3%

권향엽 "균형발전 실증...특단 대책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선정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서 전남은 사업 시행 6년 동안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아기유니콘'에 선정된 기업은 서울 50.9%, 경기 19.4%, 인천 2.6%로 수도권 기업이 78.9%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 기업은 나머지 21.1%를 나눠 가졌다. 지역별로는 대전 3.4%, 광주 2.3%, 부산 2.3%, 대구 2.3% 등이었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혁신 사업 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기업(기업 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기부의 중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됐다.

'아기유니콘'에 선정된 기업은 신시장 조사·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3억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별보증 50억원, 글로벌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권향엽 의원은 "중기부 아기유니콘 선정에서 균형 발전은 실종됐다"며 "전남에도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중기부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발굴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